

- 주요 뉴스: 월가 전문가, 미국 5월 고용지표에 대부분 긍정적 평가
 -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9월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
 - 메스터 총재, 인플레이션 상승 지속시 9월 50bp 인상 지지 시사
 - 독일 가계조사, 응답자 47%가 소비를 강력하게 줄이거나 줄일 계획
- 국제금융시장: 미 고용지표 호조 등에 따른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강화 가능성에 초점

주가 하락[-1.2%], 달러화 강세[+0.5%], 금리 상승[+20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연준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주요국 경기 지표 부진,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 금리인상의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지며 상승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2%, 2.9%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성향 강화로 크게 상승
독일은 유로존 소비자물가 급등 등으로 큰 폭 상승

※ 원/달러 환율(주간) 1.09% 하락. 한국 CDS 포함

		6/3일	5/27일	전주말대비			6/3일	5/27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4108.5	4158.2	-1.20%	국채 금리 10y	미국	2.93%	2.74%	20bp
	유럽	440.09	443.93	-0.87%		독일	1.27%	0.96%	31bp
	중국	3195.5	3130.2	2.08%	CDS 5y	한국	46bp	46bp	0bp
	일본	27761.6	26781.7	3.66%		중국	71bp	71bp	0bp
	한국	2670.7	2638.1	1.24%	위험 지표	EMBI+	-	391	-
환율	달러지수	102.14	101.67	0.46%		VIX	24.79	25.72	-3.62%
	유로화	1.0719	1.0735	-0.15%		WTI유	118.87	115.07	3.30%
	엔화	130.88	127.11	-2.88%	원자재	구리	447.20	430.65	3.84%
	위안화	6.6603	6.6994	0.59%		금	1,851.2	1,853.7	-0.14%
	원화	1242.7	1256.2	1.09%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월가 전문가, 미국 5월 고용지표에 대부분 긍정적 평가

- (BlackRock)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 신호. 또한 비농업부문 취업자수가 39만명 증가한 것은 매우 강력한 것으로 연준이 금리인상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
- (JP Morgan) 임금인상이 완화되고는 있지만 인플레이션 목표와 일치하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연준은 임금이 연간 3.5% 속도로 줄어들기를 원할 것이라고 발언
- (TD Securities)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금년 후반에 금리인상을 일시 중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언급
- (Metlife) 숙박 및 서비스업 종사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미국내 소비가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동했음을 반증하는 지표. 다만 이러한 기조가 얼마나 유지되느냐가 중요. 고용지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연준의 금리인상을 예상한 것으로, 5월 고용지표 호조는 구름이 조금 더 깊어지기 전 마지막 햇빛일 수 있다며 경계
- (National Securities) 임금 오름세가 가속화할 경우 임금-물가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지만, 5월 고용지표의 경우 임금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
- (Bloomberg) 5월 고용지표는 연준이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6월과 7월 50bp 인상의 빅스텝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9월에도 최소 25bp 인상이 가능할 수 있다고 진단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9월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

- 연준 내부에서 6월과 7월 빅스텝 이후 금리동결 주장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아 금리인상을 쉬어갈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고 발언. 또한 물가가 정점을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진단

■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상승 지속시 9월 50bp 인상 지지 시사

- 6월과 7월의 FOMC에서 50bp 금리인상을 선호하며, 5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도 완만해지는 임금추세는 긍정적이라고 평가. 다만 리세션 위험은 최근 들어 높아졌다고 진단
- 또한 월간 물가 지표가 하향세에 있다는 확실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9월 FOMC에서 50bp 인상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발언

■ 미국 5월 ISM 서비스업지수, 55.9로 '21.2월 이후 최저치

- 서비스업지수는 24개월 연속 50을 상회하며 확장국면을 이어가고 있지만, 하위 지수중 기업활동지수가 54.5로 전월대비 4.6pt 하락하였고, 수주잔고(52, -7.4pt), 지불가격(82.1, -2.5pt), 재고변화(51.0, -1.3pt) 등도 부진 흐름

■ 독일 가계조사, 응답자 47%가 소비를 강력하게 줄이거나 줄일 계획

- 공영방송사인 ADR이 1337명의 일반 가계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높은 물가 부담때문에 소비를 줄이려는 가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결과. 특히 월수입 €1,500 미만의 저소득 가계중 77%가 소비 축소를 계획
- 월수입 €3,500 이상의 가계중 29%도 소비를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 독일의 4월 소매판매는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전월비 5.4% 하락하며 1년래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

■ 제인 프라이저 씨티그룹 CEO, 미국보다 유럽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러-우 전쟁으로 인하여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업활동을 제약시키는 상황. 또한 연준보다 ECB가 인플레이션 대처에 있어 뒤쳐진 행보를 보임에 따라 ECB가 본격 긴축에 들어설 경우 유로존 경제 타격이 심화할 가능성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지표 및 이벤트(6/6 현지시각 기준)

- 중국 5월 카이신 서비스업 PMI, 중국 5월 외환보유액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053, E-mail jchwang@kcif.or.kr